

'노버디' 위성미 '이름 어찌나'?

PGA 투어 '84럼버클래스' 1R 5오버파 125위 하위권 11번째 도전서도 컷 통과 난망



위성미가 15일 미국에서 열린 PGA투어 84럼버클래스 1라운드 13번 홀에서 티 샷을 실시 한 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 한 번째 남자프로골프대회 도전에 나선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또 한번 좌절할 위기에 몰렸다.

미셀 위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파밍턴의 네머클린 우들랜드골프장(파72·7천516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84럼버클래스 1라운드에서 5오버파 77타를 쳐 공동125위로 처졌다.

목표로 내세웠던 컷 통과는 커녕 1주 전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오메가마스터스에서 당한 꼴찌의 수모를 피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 됐다.

출전 선수 137명 가운데 위성미보다 더 많은 타수를 친 선수는 8명. 더구나 위성미는 18홀 동안 단 1개의 버디도 잡아내지 못해 '남자대회 출전을 거듭할 수록 실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7천516야드에 이르는 긴 코스에 비에 젖어 비거리에서 PGA 프로 선수를 상대하기에 부담이 더해진 위성미는 예상대로 페어웨이에서 그린 공략에 애를 먹었고 약점으로 지적되던 퍼팅도 발목을 잡았다. 드라이브샷 평균 비거리는 274.5야드로 남자 선수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79%에 이르는 높은 페어웨이 안착률에도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만만치 않아 그린 적중률은 61%에 불과했다.

더구나 그린에서도 핀과 동떨어진 곳에서 퍼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잦아 출당 퍼팅수가 2개를 넘었고 모두 34차례나 퍼터를 사용하는 등 타수를 줄일 여지가 없었다.

10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그는 13, 14, 15번홀(이상 파4) 줄 보기로 초반부터 경기가 꼬였다. 어렵게 파행진을 거듭하던 위성미는 1번홀(파4) 보기와 9번홀(파4) 보기를 힘겨운 라운드를 마쳤다.

컷 기준 타수가 이븐파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셀 위는 2라운드에서 5타 이상을 줄여야 컷 통과를 바라볼 수 있어 사실상 11번째 남자대회 도전 역시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모처럼 PGA 투어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최경주(36·나이키골프)도 첫날은 좋지 않았다. 버디는 1개에 그친 최경주는 보기 1개와 더블보기 1개를 곁들이며 2오버파 74타를 쳐 공동84위에 머물렀다.

최경주도 샷의 정확도는 수준급이었으나 퍼팅 개수가 무려 35개로 처사는 등 크고 굴곡이 많은 그린에서 고전했다. 니콜라스 톰슨(미국)이 8언더파 64타를 뽐내 단독 선두를 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승엽 'ML행 눈도장'

미·일 올스타전 후보로 뽐낸



39홀런으로 일본프로야구 전체 홀런 1위를 질주 중인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11월3일부터 벌어지는 미일 올스타전에 출전할 일본 올스타 후보에 뽑혔다.

일본야구기구(NPB)는 15일 홈페이지(http://www.npb.or.jp)를 통해 미일 올스타전에 출전할 후보 77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다. 올스타전 39명, 퍼시픽리그 38명, 올스타전 후보 중 팬 투표를 통해 선발, 중간, 마무리투수 등 투수 3명, 야수 8명, 지명타자 1명 등 12개 포지션에 걸쳐 올스타

를 선발한다. 앤디 시츠(한신), 타이론 우즈(주니치) 등과 함께 올스타전 1투수에 이름을 올린 이승엽은 퍼시픽리그의 후쿠우라 가즈야(지바 롯데), 마스나가 노부히코(소프트뱅크), 알렉스 카브레라(세이부), 오가사와라 미치히로(니혼햄), 기요하라 가즈히로(오릭스)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교롭게도 올스타전 1투수 후보는 모두 외국인선수, 퍼시픽리그는 대부분이 일본 선수라는 점이 이채롭다. 팬 투표로 선정된다면 아무래도 일본 선수가 1위를 차지할 공산이 크다.

리그 홀런 1위, 타격 2위(0.318), 타점 4위(94개) 등 공격 전반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는 이승엽에게 성적으로 필적할 만한 선수는 리그 타점 1위(103개), 홀런 3위(33개)를 달고 있는 우즈, 퍼시픽리그 홀런 1위(31개), 타점 3위(90개)인 오가사와라, 퍼시픽리그 타격 1위(0.329)인 마스나가 등이 꼽힌다. 투수는 20일부터 10월3일까지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이뤄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완벽한 공중돌기

15일 일본 요코하미에서 열린 싱크로나이즈 수영 월드컵 대회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스페인팀이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대 김덕현 비공인 한국신

대학육상경기 세단뛰기

김덕현(조선대)이 제60회 전국남녀대학 육상육상경기대회에서 비공인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했다.

김덕현은 15일 경북 영주 운동장에서 열린 남자대학부 세단뛰기에서 17m06cm를 뛰어 비공인 한국신기록과 대회신기록을 작성

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김덕현이 기록한 17m06cm는 뒷바람이 강하게 불어 비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2위선수와 2m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가파른 기록향상을 보이고 있어 오는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15회 도하아시안게임 세단뛰기에서 금메달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여대 우승 '명중'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

광주여대가 제23회 회장기 전국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우승했다.

광주여대는 15일 강원도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여대 단체전에서 두가영(4년)·김수정(3년)·기보배(1년)·조혜영(1년) 등이 조를 이뤄 218점을 쏘 목원대를 2점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조혜영(광주여대)은 여대 30m에서 355점을 쏘 금메달을 추가해 2관왕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금메달

전국 근대 5종 선수권

광주도시공사가 제25회 전국근대5종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5일 경북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5종 단체전에서 김진오와 김상원이 팀동료인 한재병과 김근섭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한재병(광주 도시공사 B)은 남자일반부 5종 개인전에서 역시 팀 동료인 김진오를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성 빠진 맨유 힘쓸까

내일 밤 맨유-아스날, 첼시-리버풀 'EPL 빅포' 맞대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전통의 4강으로 꼽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아스날, 첼시, 리버풀이 이번 주말 맞대결을 벌인다. 맨유와 아스날은 17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경기장에서 2006-2007 시즌 5라운드 맞붙고 첼시와 리버풀은 같은 날 9시 30분 첼시의 홈 구장인 런던 스텐퍼드브리지 경기장에서 대결한다.

프리미어리그 4강이 한 라운드에서 동시 맞대결을 벌이기는 드물다. 국내 팬들도 대극전사들의 출격과는 별도로 4강 충돌에 관

심을 보이고 있다. 개막 이후 패조의 4연승을 달린 맨유는 발목 인대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박지성과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다친 라이언 깁스가 빠져 미드필드 측면에 큰 공백이 생겼다. 대신 출전 정지 징계가 풀린 웨인 루니와 폴 스콜스가 돌아오기 때문에 공격력은 유지하고 있다. 아스날은 간판 스타 티에리 앙리가 부상으로 출전하기 힘들다. 아스날은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함부르크(독일)에 2-1 승리를 거뒀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무1패로 20게임 중 17위까지 떨어졌

다. 체코 대표 토마스 로시츠키의 한 방에 기대를 걸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3연패에 도전하는 첼시는 2004-2005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리버풀을 안방에서 맞이한다.

첼시는 지난 두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챔피언스리그와 FA컵 등 중요한 길목에서 리버풀에 번번이 털미를 잡혔다. 이번 시즌 개막 직전 단관승부로 열린 커뮤니티실드에서도 리버풀이 첼시를 물렸다. 첼시로서는 설욕의 기회다.

첼시는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 에슬리 폴을 영입해 그물코를 더 촘촘하게 짰고 리버풀은 네덜란드 대표 공격수 더르크 카윗을 데려와 화력을 업그레이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필사의 저지

15일 영국에서 열린 UEFA 컵 첫번째 라운드에서 웨스트 햄 유나이티드의 카를로스 테베즈(오른쪽)와 팔레모의 마티아 가사니(왼쪽)가 볼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황제' 우즈 탈락 77위 손미킬에 저

HSBC월드매치플레이 1회전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구가하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연속 행진이 예상 밖의 선수에게 가로 막혔다.

세계랭킹 77위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상금순위 41위에 불과한 손미킬(미국)은 1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근교의 웨스트스윙골프장(파72·7천308야드)에서 36홀 매치플레이로 펼쳐진 유럽프로골프(EPGA) HSBC월드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첫 관에서 우즈를 4홀 차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로써 브리티시오픈, 뷰익오픈, PGA 챔피언십, 브리지스톤인비테이셔널, 도이체방크 챔피언십 등 최근 2개월간 출전한 대회마다 우승컵을 거머쥘었던 우즈는 1회전 탈락으로 연속 행진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번이 많아 '강자의 무덤'으로 불리는 매치플레이 대회라지만 우즈의 패배는 상대가 약체인데다 경기 내용에서도 일방적으로 몰린 끝에 당한 것이라 다소 충격적이었다.

미킬은 2003년 PGA챔피언십을 제패해 '메이저 챔피언'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후 3년이 넘도록 PGA 투어에서 우승은 커녕 '톱10' 입상도 딱 3차례 뿐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터키 축구대표팀

수교 50주년 A매치

양국 축구협회 내년 개최 추진

한국과 터키가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 양국 축구 국가대표팀간 경기(A매치)를 갖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 따라 2002년 한-일 월드컵 3-4위전에서 보여준 우애를 5년 만에 다시 나눌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외교통상부는 한·터키 외교부 문화국장 간 협회가 지난 14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2007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양국 축구협회간 협의를 통해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한국 또는 터키에서 축구대표팀간 친선경기가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15일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